

먼저 21 개월 딸아이를 키우는 초보 아빠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성을 다해 자녀를 키워오신 선배 학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K-12 에 해당하는 자녀를 키워본 일이 없어 아래와 같이 조언(?)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지는 모르겠으나, 후배 학부모라기 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K-12 시절 / 대학생 / 직장 생활을 겪은 자녀들의 선배라고 느그러이 봐주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2 년 대학교에 일찍 입학하는건 경험상 크게 문제는 없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는데, 한국에는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의 경우 조기졸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1 년 빠르게 (소위 ‘빠른 년생’의 경우에는 2 년 빠르게)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러한 학생들도 대학교 생활에 대부분 잘 적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특성상 대학교도 부모님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어서 일 수 있습니다 - 캐나다처럼 나라가 커서 타주로 대학교를 가야할 경우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좀 더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부모님 집에서 통학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는 BC 주 운전면허를 딸수 있는 나이 (만 16 세) 엔 대학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 공부해서 남 주면 본인도 그만큼 성장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 그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주위의 친구들이 수업에 관해서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물어볼 때, 마치 본인이 학교 선생님인것처럼 성심성의껏 가르쳐주기를 시도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 커뮤니케이션 능력 / 그리고 본인이 막연히 알고 있던 교과 내용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3.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학부에 입학해서 주위의 학우들과 얘기하면서, 저는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고, 그러한 사람들과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만약 현재 다니시는 학교에서 교과 내용으로 도전을 받기 어렵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개수업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익숙한 분야가 수학/통계이다보니 그쪽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Pre-Calculus 까지 끝냈다는 전제하에 MIT OpenCourseWare 에서 제공하는 18.01SC (Single Variable Calculus) -> 18.02SC (Multivariable Calculus) -> 18.06 (Linear Algebra) 로 차례차례 도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다 끝내실 수 있다면 웬만한 STEM 전공의 대학교 2 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학은 다 들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4. 운동하기 좋은 때입니다.

10 대 후반에는 무엇을 먹어도, 언제/어디서 자도, 크게 피곤하지 않은 때입니다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부족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급적 시간이 날때마다 친구들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체력을 길러두시면 두고두고 좋습니다.

5. 독서하기 좋은 때입니다.

스포츠에 비유하면, 독서는 마치 달리기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독서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화하는 속도가 보통 사람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가능한 지금 책을 많이 봐두시면 좋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전공 공부에 바빠서, 대학교 졸업이후에는 일을 익히고 연애하느라, 결혼한 후에는 가정을 돌보고 육아하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습니다.

6.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조언을 구하면 좋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그에 맞게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 및 전망을 고려했을 때 매력있어 보이는 직업들이 보인다면, 해당 직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의 전망이 어떤지,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지, 만족스러운 점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물어보세요. 대학교 학생이 연락을 해와도 반가워하실 판에 K-12 학생에게 그런 연락을 받으면 더욱더 반가워서 만나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전문가를 찾기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해당 직업과 관련된 전공의 대학교수를 만나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수님이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대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연결시켜 줄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학/통계/보험 관련 직군을 생각하신다면, 제게 연락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ncerely,
Himchan Jeong